본질에 충실하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짐이 되는 교회도 있다.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대중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기사나 가끔씩 들려오는 소문들은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한다.

언제쯤 우리는 이 땅 곳곳에 세상의 소망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까? 물론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지역사회의 등불 역할을 하는 교회를 볼 수 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사랑의교회(담임: 박희석 목사)도 그런 교회 중 하나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요즘인데, '제가 이번에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좋은 교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라고 글을 올리면 거의 예외 없이 광주사랑의교회를 추천하는 댓글이 올라온다. 지역민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박희석 목사

- 총신대학교 졸업
- 미국 커버넌트 신학교(M. Div.)
- 리폼드 신학교(D. Miss.)
- 사랑의교회에서 사역
- 현재 경기도 광주사랑의교회 담임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그런데 광주사랑의교회는 한때 지역민 모두에게 짐이 되는 교회였다. 교인 간에 일어난 분쟁으로 인해 이웃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욕설이 오가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졌으니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이 당연했다. 우리는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간해서는 주변의 평가를 되돌려 놓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칭찬 듣고 추천받는 교회로 새롭게 자리 매김할 수 있었을까?

〈디사이플〉은 그간 광주사랑의교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 듣기 위해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희석 목사를 찾았다. 광주사랑의교회로 부임하기 전까지 박 목사는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제자훈련 목회를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목회자이다.

현장의 경험뿐 아니라 목회에 관한 이론적 토대도 확고히 쌓아둔 준비된 사역자다. 지금의 광주사랑의교회와 박 목사는 닮은 부분이 많지만, 부임을 고민하던 그때의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리이고 원칙이지만 그래도 사역자와 사역지 사이에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무엇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 자신이 직접 기초적인 토대부터 구축하는 개척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존의 틀 위에서 사역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히 자신의 은사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역지를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박 목사의 결정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부임을 결정하기까지

박 목사가 광주사랑의교회로 부임을 결심하기까지는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서울 사랑의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던 어느 날 박 목사는 폴 투르니에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부터 큰 도전을 받았다. 박 목사는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를 전달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본문으로 떠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에 대해 설교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이 날 이후 성도 중 몇 분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떠났다. 박 목사에게 찾아와서는 설교에서 큰 도전을 받았고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남기고는 아프리카로 인도네시아로 떠났던 것이다.

박 목사는 정말 그렇게 떠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해 10월, 경기도 광주의 모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박 목사는 이때만 해도 이것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박 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분쟁으로 인해 이미 몇 조각으로 흩어진 교회였기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박 목사는 스스로에 대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도시적 이미지가 강한 박 목사에게는 지방 도시보다는 대도시가 더 어울리는 사역지였다. 물론 주변의 평가도 동일했다.

그런데 자꾸만 그냥 묻어둘 수만 없는 음성이 속으로부터 들려왔다. '그들은 갔는데, 너는 왜 안 가냐'라는 성령의 음성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이 커져갔다. 가만히 묻어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가슴 속 고민을 안고 담임목

박 목사가 부임한 이후 광주사랑의교회는
옛 틀을 걷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에도 반대가 없었다.
하지만, 내면 깊이 도사리고 있었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교회는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 공중분해 된 상황이었던 것이다.

사인 옥한흠 목사를 뵙고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답답한 심정을 안은 채 광주로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다.

싸움으로 갈라진 교회는 여전히 큰 어려움 속에 있었다. 싸우고 갈라진 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었다. 남아 있는 사람들 속에도 엄청난 분쟁이 남아 있었다. 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가 아니었다. 처음 방문한 박 목사의 눈에도 그들의 문제가 보일 정도였다.

얼마나 슬프게 보였던지 박 목사의 눈에 그들은 목자를 잃고 유리하는 양들로 보였다. 방황하는 양떼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목자를 잃은 양들이 겪게 될 영적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모른 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임을 결심하게 되었다.

덤으로 사는 인생

그런데 박 목사가 부임을 결정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1996년 6월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다. 몸에 작은 염증이 생겨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 문제가 생겨 감염이 되었다. 체력에 부치도록 지나친 사역으로 인해 몸의 저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이 되니까 이내 패혈증으로 발전했다. 며칠 동안 집에서 꼼짝 않고 쉬면서 참고 지내는데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며칠 후 강남성모병원에 갔다.

그런데 병원에 간 바로 그날 저녁 담당의사는 식구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3일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고, 허파에는 이미 2리터 넘게 물이 찼다는 것이다. 신장은 망가질 때로 망가져서 투석을 해야만 할 상황이었다. 얼굴빛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병균이 뇌로 침투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날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박 목사를 위해 기도했다. 예배마다, 모임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 당시 사랑의교회는 첫 번째 중보기도단이 모집된 시기였는데, 대단한 기도거리를 만난 셈이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가 하나둘이 아니었다. 생명을 건 기도 때문이었을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죽어야 할 사람이 예정된 날을 넘기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었다.

이 일은 박 목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우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삶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다. 박 목사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때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욕심을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비전이니, 소명이니 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에는 세속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박사입니다. 그 이름 뒤로 큰 교회 목회, 신학교 교수, 교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기도했다는 말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박 목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덤으로 여긴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준비가 되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부르심을 외면할 수 있었겠는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말 속에 모든 욕심을 용해시켜버린 이후였기에 객관적인 악조건들을 접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과감히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신뢰라는 이름의 마음을 얻기까지

부임을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사실 부임 이후가 더 큰 문제였다.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구원투수처럼 등장

한 리더였기에 겉으로는 반대 없이 적극적으로 동의했지만, 큰 상처를 경험한 이들이 새로 부임한 목사에게 쉽게 마음을 열 까닭이 없었다. 심지어 박 목사를 곧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아예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이들도 있었다.

옛 틀을 걷어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교회의 이름을 변경하는 일에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옛날 이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었다. 철옹성처럼 격리되어 있던 강대상도 부임하자마자 개방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에도 반대가 없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면 깊이 도사리고 있었던 어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박 목사가 부임하기 이전, 교회는 담임목사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 공중분해 된 상황이었다.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는 교회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외적인 성장만이 목표였다. 때문에 성도들은 훈련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전임 목회자가 사역하던 15년 동안 목사와 평신도가 한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형편이 이러하니 말이나 행동에 있어 미성숙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부임했을 당시에도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면 교회문 밖에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할 작정이었다.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욕이고 저주였다. 싸우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모두 목회자에게 있다. 영적 리더인 목회자가 어떤 본을 보이고 가르침을 주었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 스타일도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전임 목회자의 경우 그 권위가 하늘을 찔렀다.

목사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남발하고, 목사대접 잘 하는 사람은 예배시간에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자연히 교인들은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다. 담임목사의 말 한마디이면 마치 군대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다.

박 목사가 부임하자마자 시작한 일은 그런 구태를 제거하는 일이었다. 일단 묘한 신비감마저 들 정도로 꾸며져 있던 강대상을 바꾸었다. 마치 교황의 옷처럼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져 있던 가운도 입지 않았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이는 박 목사는 가짜 목사라고 소문을 퍼트렸다. 이전 목회자와의 간격이 큰 것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만큼 목회자가 신비화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전 목회자는 질적인 성숙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했었다.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교회일수록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법이다. 제일 빠르고 확실한 것이 교회당을 짓는 것이다. 박 목사가 부임하기 전 광주사랑의교회는 사실 건축을 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전임 목회자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무리하게 건축을 시작했다. 가난한 성도들은 빚을 내어 헌금했다. 전세금을 빼는 이들도 있었고, 사채를 빌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IMF 국제금융사태로 인해 그렇게 모은 건축헌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사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임 목사를 지지하는 그룹은 목사를 따라 나갔고, 목사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나가고, 부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동안 교회에서 2개월 이상 지속된 프로그램이 없었다.
성도들은 반대하지 않는 대신 아무 것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박희석 목사는 오로지 제자훈련에만 집중했다.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 5년이 되니까 제자훈련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은 부목사를 따라 나가고, 기존의 교회에는 중도파가 남았다. 그런데 그렇게 남은 중도파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바로 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것이 박희석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박 목사를 정말 자신들의 목자로 인정하기까지, 박 목사를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박 목사의 진심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많은 사건들이 이어졌다.

때마다 박 목사를 괴롭게 했던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사님, 여기가 강남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 우리들 심정 이해 못합니다"였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광주는 강남이 아니다. 박 목사는 박사학위까지 있으니 분명 많이 배운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그것이 문젯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다

모든 문제를 뚫는 돌파구는 제자훈련이었다. 박 목사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 하나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사실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한다면 제자훈련을 시작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다. 정말 무모할 정도로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다. 1기생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도 있었다. 다른 이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다. 15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을 만큼 개인적인 교제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교회에서 만난 모습이 서로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

자신의 삶에 대해 공개하고 나누는 영적 교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가정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제자훈련 사전 심방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지만, 11명의 훈련생이 모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철저히 모른 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런 상황은 박 목사를 더욱 제자훈련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 그때 박 목사의 심중에는 "하나님, 만약 제자훈련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 줄로 알고, 목회를 그만 두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부임할 때부터 제자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쉽게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제자훈련을 안 하면 부임하지 않겠다는 박 목사의 말에 제자훈련이 뭔지도 모른 채 동의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전 목회자가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본 상황이라서 새로 무언가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그런데 출발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반대하지 않는 대신 또한 아무 것도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인 대부분이 '이거 또 얼마 동안 하다가 말겠지'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2개월 이상 지속된 프로그램이 없었다. 그 무의미한 행사에 찌들어 있던 교인들은 수동적인 태도가 습관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자발성이 강조되는 제자훈련이 외견상 시작이 되었지만,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정말 힘이 들었다. 시작은 할 수 있었지만, 생각만큼 교인들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다른 길이 없다면 생명을 걸어라

방법은 단 하나, 제자훈련에 집중하는 것뿐이었다. 우선 의식적으로 제자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설교에도 제자훈련, 사석에서도 제자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제자훈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면 하지 않았다. 특히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독려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평신도의 가치에 대해 반복해서 교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박 목사는 자신이 그 이야기에 대해 얼마나 신실한가를 몸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것을 생각하면 교인들은 금방 알아차려 버리고, 그때부터 교인들은 구경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박 목사가 왜 광주라는 소도시에 그것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왔을까에 대해 늘 의심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박 목사는 솔직히 자신의 심중의 말을 교인들 앞에 내어 놓았다.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큰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겠지만,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광주에 왔는지 아세요? 제자훈련하려고 왔습니다. 큰 교회는 가면 대접받고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광주를 선택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교인들에게 들려주었다. '정말 저 목사는 제자훈련에 목숨 걸었구나!' 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이다.

외부사역은 일체 하지 않았다. 정말 두더지처럼 땅굴만 팠다. 이런저런 세미나들도 한 번 참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제자훈련에만 집중했다.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자훈련을 시작했지만 그 의미를 잘 몰라 소홀히 여기고 결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과외공부를 했다. 그때마다 '목사님, 여기는 제자훈련이 맞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박 목사는 흔들림 없이 제자훈련에만 집중했다.

지금까지 제자훈련 때문에 광주사랑의교회를 떠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는 박 목사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이다.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내기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목회자가 제대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인들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인들을 위해 목회를 하고자 하면 교인들은 그것을 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나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 5년이 되니까 제자훈련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제자훈련 받은 이들이 100명쯤 되자 다른 불만의 소리들이 묻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곳에는 제자훈련이 어울리지 않는다' 라는 부정적인 말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박 목사가 강조하듯 제자훈련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인내와의 싸움이다.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해야 한다. 사람들의 의식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미 익숙한 습관을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기 마련이다.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면부터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박 목사는 긴 시간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목회자 스스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쉽게 지치게 된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할 때 인내는 한계에 이른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시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다. 박 목사는 객관적인 면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과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광주사랑의교회에서는 서서히 제자훈련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 낙인찍고 외면하던 집사 한 명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자,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모든 예배와 소그룹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여러 면에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제자훈련과 박 목사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공개적으로 제자훈련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사라졌다.

박 목사에게는 지칠 때마다
항상 돌아가는 골방이 있다.
죽음을 직면했던 순간에 깊이 깨달았던
'덤으로 사는 인생'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그것이다.
박 목사는 '부흥이 안 되어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부흥은 헌신을 먹고 자란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부터 교회가 수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박 목사가 부임할 당시 180여 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7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5년의 준비기간과 그 후 1년이란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결과이다. 지난 6년 동안의 생명을 건 목회의 결실이었다.

광주사랑의교회는 외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된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 120여 명이 현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60여 명의 훈련생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평신도 스스로 사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 현장 곳곳에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고 있다.

교회의 모든 조직도 비효율적인 조직에서 완전히 탈피해 선교에 집중되어 있다. 예배 형식에도 큰 변화가 있어 새신자 중심의 예배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 전도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교회당 1층은 북카페로 꾸며 지역사회에 공개했다. 등산선교, 축구선교, 볼링선교, 문화교실 등등 다양한 전도 채널도 준비되어 있다.

성도들의 언어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대화의 내용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간증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제는 갑자기 늘어난 교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버렸다. 목회에 자신이 없었던 한 목회자, 그리고 목회는 제자훈련 목회밖에 아는 것이 없었던 한 목회자의 무모하기까지 했던 도전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박희석 목사의 말처럼 정말 박 목사는 지난 시간 동안 제자훈련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 했다. 박 목사는 지금과 같은 성장을 한번도 목표로 삼아본 적이 없다. 사실 광주사랑의교회는 이런 성장을 기대할 만한 여건도 아니었다. 그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본질에 충실한 헌신이 가져온 열매였던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 목사는 '마음속의 골방'이라고 대답했다. 목회자는 목회하다 힘이 들고 지칠 때 돌아갈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한다.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한다. 결코 머리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목회라고 박 목사는 단언한다.

목회자에게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한다. 제자훈련 하는 목회자는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교인들의 마음까지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박 목사에게는 지칠 때마다 항상 돌아가는 골방이 있다. 죽음을 직면했던 순간에 깊이 깨달았던 '덤으로 사는 인생'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이 그것이다. 박 목사는 '부흥이 안 되어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제자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결과 지향적인 시대의 흐름과 과감히 결별할 때,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흥과 변화는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광주사랑의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갇혀 있지도 않다. 욕심을 버리고 본질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게 마련이다. 박희석 목사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소원한다.

〈김건주 목사〉

평신도 인터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 귀한 기회"

– 광주사랑의교회 **정명조 집사**

"제자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정명조 집사는 주저 없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는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한 기회였기에 제자훈련 이후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목표가 달라졌다고 했다.

정 집사는 지난 2002년 3월 광주사랑의교회의 가족이 되었다. 2002년 1월 광주로 이사하면서 2개월 동안 교회를 찾기 위해 분주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비슷한 형편에 있던 직장 후배가 광주사랑의교회에 같이 출석하자는 제안을 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때 그렇게 제안했던 후배는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은 다른 교회의 식구가 되어 있다. 마치 정 집사를 사랑의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역할을 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한 정 집사에게 교회는 고향과 같은 곳이지만 동시에 상처로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교회가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컸다. 거대한 기계처럼 시스템에 의해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라서 제자훈련을 포함한 교회 내부의 전반적인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역한 감정을 속으로 숨기며 살아왔다. 계단을 오르듯 그저 다음 단계의 훈련이나 교육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이들을 지켜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단단히 굳혀 왔다.

이런 정 집사가 삶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눈물과 땀이 있었다. 광주로 이사하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겪은 아픔이 적지 않다. 거듭되는 실패와 어려움으로 많이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삶의 곡선이 최하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정 집사를 광주사랑의교회와 만나게 하셨고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4년 가을 제자훈련을 받게 하셨다.

과도한 삶의 짐을 지고 있던 그때, 정 집사는 몹시 지쳐 있었다. 육체적인 피곤과 마음의 피로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만약 그때 제자훈련이 없었다면 정 집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렇게 지쳐 있는 정 집사에게 제자훈련은 숨을 쉬게 하고 피를 돌게 하는 허파와 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함께 훈련을 받았던 동료들의 사랑과 기도가 없었다면, 훈련을 통해 공급되는 말씀의 은혜가 없었다면 정 집사는 쓰러졌을 것이다.

최악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정 집사는 삶의 새로운 소망을 만났다. 상황이나 조건이 엄청나게 변화된 것은 아니다.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 선교사나 목회자 후원하며 살자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자기 스스로 그런 사역에 동참할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정 집사는 인생의 목표가 수정 되었다. 스스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 아프리카 가나를 목표로 삼고 준비 중이다.

제자훈련이 그저 성도들의 머리만 채우는 교육에 불과하다는 편견은, 정 집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 집사의 경우만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모든 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생의 어둔 밤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로 부르신다. 훈련이라는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신다.